

큰 스님 수행한담

영원히 사는 이치알어요



◇1965년(음) 5월 28일 효봉스님(가운데) 생신날 동화사 금강선원에서. 효봉스님은 촛불을 켜어 집시에 담고 심지를 박아 불을 밝혔고, 걸레도 꼭 짜면 빨리 떨어진다고 할 정도로 근검절약했다. 효봉스님 바로 뒤가 법흥스님이다.

인류를 살상하는 무기를 개발해서야 되겠느냐 반성이 나오고 이제는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 하는 위기론이 대두됐지만 서양의 물질문명 가지고는 한계를 느낀 것이지요. 동양의 정신문화로 해야 하는데 동양의 정신문화는 유불선(儒佛仙) 3교인데 그중 불교가 가장 심오하고 진리가 깊어요. 그래서 영국의 석학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30여년전 일본에서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현재의 물질의 힘과 정신적 도덕의 부조화가 현대를 위기와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

려야 하는 무기를 개발해서야 되겠느냐 반성이 나오고 이제는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 하는 위기론이 대두됐지만 서양의 물질문명 가지고는 한계를 느낀 것이지요. 동양의 정신문화로 해야 하는데 동양의 정신문화는 유불선(儒佛仙) 3교인데 그중 불교가 가장 심오하고 진리가 깊어요. 그래서 영국의 석학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30여년전 일본에서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현재의 물질의 힘과 정신적 도덕의 부조화가 현대를 위기와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

인류는 점점 위기로 치달고 있어요 물질과 도덕의 부조화가 원인 해결책은 오직하나 불교의 지혜

문에 함허스님의 <금강경오가해>에 나오는 설법구절이 있어요. '청정한 이 마음 자라는 천국을 지내도 옛이 아니고 만세를 뻗어도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생명이 원래 없는 것이다' 라고요. 모든 법은 인연을 좇아 생겼다기 인연이 다하면 멸하니 우리 인생은 부모인연 속에 생겨 살아있으면서 일초일초 시간이 갈수록 죽음으로 접근하고 있지요. 현실에서 부단히 살고 있으면서 또 부단히 죽음을 기다리거나 남을 따르라고 하지는 못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모순입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의지는 죽음에서 단절되고 맙니다. 싯달타태자는 설산에서 6년동안 고행해서 드디어 우주만상 진리를 깨닫게 되자 첫 일성이 '인간의 자성(自性)은 청정한 것이고 청정한 자성은 만고에 불변이다'고 선언하셨어요. '멸도'라는 것도 싯달타태자의 마음가운데 불타고 있던 번뇌의

멸 개칠 수 있나고요. 마음이란 형상과 모양과 빛깔과 무게와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마음의 명령에 움직이게 마련이라 그 작용따라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요. 마음을 깨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청정한 마음, 광명정대한 마음 일월같은 청풍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임제스님은 '청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셨지요. 두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에 대해, 국가에 대해, 부모님에 대해, 스승에 대해 그리고 중생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번째는 용맹심이 중요함입니다. 효봉스님이 38세에 늦깎이로 출가하자마자 금강산 신계사에서 8년동안 장좌불와와 오후불식으로 도를 깨쳐셨지요. 한번 용맹정진하면 어찌나 움직이지 않았는지 한번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엉덩이에 좌복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더라 합니다. 엉덩이가 짓물렀는지도 모르고 화두일념으로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한 용맹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맨날 피동적으로 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항상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도 중요함입니다. 남에게 의지하고 기대는 것도 남에게 맞지 않는 것이지요.

생활 禪에 대해 알려주세요
문 불법에 대해 여러가지 말씀을 듣고 보고 나름대로 수행도 해보았습니다.
생활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운원중·충남 천안시 광덕면>
답 많이 보고 많이 들었더니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나 할나에 우주의 진리 속에서 시공을 초월해 돌아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우리의 생활 자체가 행선(行禪)이자 과학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할나 할나에 고집이 없이 시공을 넘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했을 때 나가 했다고 했느냐는 반문이 나오네요. 할나 할나 돌아가니까 꼭 집어서 '나'라고 할 게 없다. 그냥 공했다 라고 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나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활이 그대로 선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이걸 믿으면 잠자고 밤 먹고 움직이는게 다 선인 것입니다.

렇게 하신다면 땀에 공이 갈려나 오듯이 엄중도 녹아진다고 합니다. 그게 생활선이고 화선이고 입선이고 좌선입니다.
누구나 '나'라는 이 거죽을 믿지 말고 진리를 믿으면 부처님의 속내도 알게 됩니다. 생활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젠가 큰 회사의 공장장을 한다는 분이 찾아와서 곧 파업이 일어날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주인공 있잖아!' 하고 말씀합니다.
주인공이란 꼭 집어서 '나'라고 할 수 없는 그 체(體)가 없는 마음 전체 이기에 수만명이라도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라도 주인공! 할 때는 바로 우주 전체의 중심이 됩니다. 전체와 바로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다고도 같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 분이 와서 하는 말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실적도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심으로 공생 공유하

"파계는 깨진 그릇" 계 어기면 성불 못해 "청정·감사·용맹심으로 정진합시다"

려면 고차원적인 종교의 힘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요. 서양에서 실천철학이 나온 것도 자기네 문명에서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계의 노예가 되고 종속됐기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본래의 나를 찾으려는 노력이지요. 실천철학은 불교의 철학이고 위기의 철학이고 초월의 철학이고 반역의 철학으로 비본래적인 것에서 본래적인 나를 찾자는 철학으로 20세기 사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선은 의심입니다. 의심을 한군데로 집중하다보면 번뇌가 끊어집니다. 불교를 믿는 목적은 인간을 해탈해 자력으로 피안에 도달하려는 것이지요. 불교는 생명의 세계에서 해탈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종교입니다. 사람 사람마다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것을 존중하고 자력으로 피안에 이르는 종교이지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객관적인 실존자가 내 마음밖에 존재하고 있다고 가르치며 객관세계에서

간접적입니다. 싯달타태자가 사문유관후 출가한 것이 계기가 되었지요. 싯달타태자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늘 사문유관을 하는 셈입니다. 앞에 가는 등이 굽고 주름이 깊은 할머니를 보면 그것이 내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옆에서 부모가 돌아다니는 일은 우리집에도 딱지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는 육신은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로써 부모의 인연속에 태어나 일시적으로 잠깐 왔다 가는 숙명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 언제 죽을지 모르며 지금 곧 죽을 지도 모른다는 것. 나라는 존재는 영구히 살 것같은 느낌이지만 풀잎과도 같은 인생이지요. 불교적 용어로 표현하면 가이(假我)입니다. 실아(實我)는 무아, 마음이고 낯이고 정신이고 육체를 끌고다니는 주인공입니다. 육신은 나고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청정한 마음자리는 불생불멸이고 부조불감이고 불구부정입니다. 해인사에 가면 일주

불꽃이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고, 경성도 싯달타태자가 부처가 되어 본래 성품을 보았다는 것이고 정각도 싯달타가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또 모든 것이 연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생에 8천겁 인연이라야 금생에 부부가 되고, 9천겁 인연이면 금생에 형제간으로 태어나고 10천겁 인연이면 모자나 부녀간이라는 혈육의 인연이 되고, 7천겁 인연이면 한집안 식구로 태어나고, 1천겁 인연이면 한 나라에 태어나고 6천겁 인연이면 배를 맞대고 하룻밤 잘 수 있고 한마음에 사는 인연은 5천겁 인연입니다. 이렇게 지중환 인연으로 맺어진 것을 안다면 우리는 부모 형제 친척 이웃 등 가까운 이들에게 냉혹하게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울때 서로 돕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아 오는데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

지 상 상 담

길은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 경에 관해 의문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 스로 보내주세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미불교선원 대법스님께 물고 답을 물어서 편집자가 정리·개제해 줍니다.

보냈: 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내가 주인공! 하는 것은 모두가 공했다! 그래서 주인공!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이것은 참선이고 저것은 행선이다라고 할 것이요 주인공에 다가 앞일하면 그대로 여여하면서 참선도 되고 행선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상 속에서 일하고 밥먹고 똥누면서 행선도 하고 참선도 하는 것이지요. '나'라고 고정할게 없으며 할나 할나에, 전체가 공하여 돌아가는 것을 믿는다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괴로운 일 외로운 일, 고달픈 일, 즐겁든 그 모두가 할나 할나에 들고 들면서 내 속에서 나온 것이니까 나 온곳에 되돌고는 걸림없이 여여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할 나위 없는 생활선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놓아버리고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데 그러면 연방 돌아가는 땀땀을 연방 되돌아 앉고서 무엇이 갈져 나오겠습니까? 괴롭다고 불잡고 매달리고 좋다고 놓지 않으려 한다면 연방 돌아가는 땀땀이 빈 땀땀이 될게 아닙니까? 나는 공이다. 그러나 내가 했다고 할게 없다. 모든게 내가 있음으로써 비롯되는 것이지만 할나에도 고정된 것은 없다. 전체가 같이 돌아가는 거럼으로 슬픈 괴롭든 그것까지도 들고 돌아가는 거기에 놓고 맡기자, 이

고 공식하는 공체로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하디 흔하디 너와 내가 다 하는 식으로 따르므로 돌아가는 줄로 알뿐 아니라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를 갈라 놓습니다. 기독교도 불교도 가톨릭이다 하고 편가르기도 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쪽을 '더 넓혀서 너와 내가 같이 돌아가고 좀 더 넓혀서 모든 인간, 나아가서는 우주 전체가 같이 돌아가고 해 보십시오. 우주 전체가 인간 마음의 근본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만 근본이 결부되어 한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어 있으니까 이것을 믿고 마음공부를 해나가는 분은 불 소식을 들었다고 산 넘어 먼 데로 찾아다닐 것도 없고 이 방법 저 방법 찾으며 할 것 없이 그대로 나 앉은 지리가 법당이고 내 생활이 참선인 줄 아실 겁니다. 그렇게만 되신다면 문자 그대로 자유이고 그런 생활이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옛날 육조스님께서 자신이 본래 청정할 줄 어찌 알았으리까, 자성이 본래 만물을 들고있고 밤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셨는데 '아,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 몸이 내 몸이니 어찌 거룩하다고 말로 하리까'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흥망케 될 것입니다.

추천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 옥집이 칠푼 10분후 쉰 손의 분광파장이 활발하다
면역 사용전 1.5V 면역사용후 3.0V로 체내전압 상승

암과파(어) 현상으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20여종의 뇌노르아민 분비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정혈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두통, 불면증, 심장병, 귀울림, 치매, 신장병, 경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합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들었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물린중96.9%, 침장침환자 92.9%, 귀울림
병91.3%, 어지러움중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료
과를 기록했다 (93.2.17 서울신문)

玉山家 옥인을 찍어서 사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명동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777-0105 (수권판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안녕하세요!
이영숙원장입니다.

남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法名 이영숙

'이자임결혼연구원'을
「현대정교보결혼연구원」으로
명칭을 새롭게 개명하였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멋진
혼인문화를 구성하며 새로운 각
오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성원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미래지향적으로
불자님 자녀의 결혼관이
이상적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내일을 더 큰 사랑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태아가 임마의 뱃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
원(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오르본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오르본은 우리 몸의 균형
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
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
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
르 좋은 향기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
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뱃살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 고통받는다.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